

끝까지 신실하기(렘 강해 설교 37)

성경말씀: 렘43:1-7

가례아의 아들 요하난과 유다 백성이 이집트로 가려고 함. 이미 마음속으로 정하고는 대언자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함. 대언자가 가지 말라고 하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함. 그리고는 결국 이집트로 내려감. 기도 태도, 성경 무시, 명백한 경고를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감: 복이 있을 수 없다.

리더의 필요성

하나님은 항상 리더를 세워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신다: 아담, 모세, 여호수아, 다윗, 바울, 디모데
명백한 사실: 리더가 있고 리더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크리스천 리더십이 무엇인지 잘 보여 주셨다(막10:35-45).

야고보와 요한, 무엇이든 해 주기 원합니다. 영광 가운데서 오른편, 왼편, 침례를 받을 수 있냐?

네,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의 리더십: 주인 된 권리, 권위 행사,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리하면 안 된다.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45절

섬기는 리더십(servant leadership)

교회를 하면서 요즘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예수님의 마음, 섬기는 리더, 인간의 본성과 반대가 되므로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리더는 여러 종류가 많다: 목사, 집사, 지역 모임, 각종 섬김, 주일학교, 교회행정, 남편, 아내, 직장, 모든 성도

사도 바울의 고백(고전4:1-2)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실함이다. 신실함(faithfulness). 믿음직스럽다. 하나님의 기본 속성, 우리의 불의와 불법에 상관없이 믿음직하게 역사를 이끄신다.

그런데 이 신실함이 끝까지 가야 한다.

딤후4:9-11, 16-17, 강제임스 성경, 바른 교회 끝까지 신실하게 가야 한다. <끝까지 신실하기>

신실한 자들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레미야가 얻은 것: 조롱, 비난, 멸시, 감옥, 매 맞음, 차꼬 그리고 결국 이집트로 내려가 하나님의 백성과 삶을 공유하다 이름 없이 죽음.

세 종류의 사람(5-6): 읽고

(1) 악한 일로 이름이 밝혀진 사람: 요하난, (2) 이름이 없는 추종자: 군대의 모든 대장과 모든 사람, (3) 신실함으로 이름이 밝혀진 사람: 예레미야와 바룩

(1)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로 이름이 밝혀지면 그 수치가 얼마나 크겠는가?

딤후4:14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2) 이름이 없는 다수의 추종자들: 44장에 가서 보면 결국 잘못된 지도자의 인도를 받으며 이집트에서 우상숭배를 하다가 대부분 멸절됨,

(3) 신실한 자, 대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 이집트로 가지 않아도 되었다. 호위대장의 제안에 따라 바빌론으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대언자로 유다 땅에 남기로 함. 그와 바룩이 가장 가기 싫어한 곳이 이집트이다.

그럼에도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자기들의 의지를 꺾고 이집트로 내려가 삶을 마친다.

고전4:1-2의 말씀처럼 신실함이 요구되는 시대에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자들

그들의 사역의 크기: 구원시킨 자가 많지 않았다. 삶이 부유하지 않았다. 아내도 얻지 못해 가정도 없었다 (렘16:2). 얻어 터졌다. 지하 감옥의 진창에 갇혔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신다.

말3:16, 기념책을 기록해 두신다.

(4) 이 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죄와 불법으로 물든 이 세상을 보시면 한번에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대적하는 이집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집트와 같은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사랑을 보여 주셨다.

(5) 구약시대에는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이들의 한결같은 특징: 사역의 대상인 백성들이 사랑할 만 해서 사랑하지 않았다.

이들의 사역의 대상: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하며 마음대로 살던 자들, 다 이집트로 내려간

유다 백성과 같은 존재,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다.

모세 같은 경우 너무 힘들므로 차라리 죽여 달라고도 했다. 이 정도로 힘든 게 리더의 삶이다.

마가복음 6장의 침례자 요한, 끝까지 신실한 결과가 참수형이었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요한은 가장 큰 자들 중 하나였다.

(6)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았다. 고린도에 가서는 교회를 세우고 1년 반 이상
말씀으로 먹여 잘 키워놓고 떠났다. 들리는 소식: “온다고 했지만 안 오는 것을 보니 거짓말쟁이이다”(고
후1:15-20), “글은 잘 쓰지만 실제로는 약하고 말도 형편없다”(고후10:10), “사적 이득을 취하였다”
(고후12:161-18), 역장이 무너지지 않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다 로마의 감옥에서 참수형으로 죽어갔다.

현 시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

우리는 다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대를 섬기고 간다. 70-80년

신실하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를 주셨다. 좋은 교회로 모이게 해 주셨다.

내가 해야 할 일: 신실한 자로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다.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는 흥한다.”

내가 끝까지 해야 할 일: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신실한 자로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것

앞으로 이 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목사와 여러 종류의 리더가 나올 것이다:

목사도 리더도 사람인지라 잘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신실하게 행하는데도 이집트에 마음을 두고 리더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

이럴 때는 벗어버리고 싶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나와 내 아내).

그래도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엔 이 백성을 사랑하며 나가야 한다.

어쩔 수 없는 부담

예수님이 사랑한 세상, 사람이 사랑하기에는 너무 추한 세상이었다. 그래도 요3:16

끝까지 신실하게 성경을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보여야 한다.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마25:21)